

# 다가온 여름, 식중독 주의보

### 전주시,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식중독·비브리오패혈증 주의 야채 수돗물로 세척·육류 가열 섭취·지하수 사용 금지 등 어패류 생식 피하고, 피부에 상처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 금지해야

전주시가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음식물의 보관과 섭취,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오염된 식품 섭취 12시간~72시간 후 설사, 복통, 발열, 구토 등이 발생하는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의 경우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오염된 용수로 세척한 채소, 도축과정에서 오염된 육류 등을 통해 감염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추와 부추, 오이 등을 깨끗한 물로 세척해

섭취하고 장시간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장시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급성발열과 오한, 혈압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발열 후 증상 발현 후 24시간 내 하지 부종, 수포가 발생하는 비브리오패혈증의 경우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된다.

특히, 비브리오패혈증은 만성 간 질환자와 당뇨병 환자, 알콜중독자 등의 기저질환을 보유한 시민이 걸릴

경우 치사율이 50%가 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시는 시민들의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세정제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 씻기 △가금류·수산물·육류 등 세척 시 날로 씻기 △야외에서 조리된 음식 섭취 피하기 △생선 구이 등 조리된 음식 섭취 △생선 구이 등 조리된 음식 섭취 △생선 구이 등 조리된 음식 섭취

△생선 구이 등 조리된 음식 섭취 △생선 구이 등 조리된 음식 섭취 △생선 구이 등 조리된 음식 섭취 △생선 구이 등 조리된 음식 섭취 △생선 구이 등 조리된 음식 섭취 △생선 구이 등 조리된 음식 섭취 △생선 구이 등 조리된 음식 섭취 △생선 구이 등 조리된 음식 섭취 △생선 구이 등 조리된 음식 섭취 △생선 구이 등 조리된 음식 섭취

△생선 구이 등 조리된 음식 섭취 △생선 구이 등 조리된 음식 섭취 △생선 구이 등 조리된 음식 섭취 △생선 구이 등 조리된 음식 섭취 △생선 구이 등 조리된 음식 섭취 △생선 구이 등 조리된 음식 섭취 △생선 구이 등 조리된 음식 섭취 △생선 구이 등 조리된 음식 섭취 △생선 구이 등 조리된 음식 섭취 △생선 구이 등 조리된 음식 섭취

히 가열 조리하기 △조리된 음식 상온에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하기 등을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의 생식을 피하고, 가급적 5℃ 이하로 저온 저장 후 85℃ 이상으로 가열처리하거나 흐르는 수돗물에 씻은 후 섭취해야 한다. 또,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

전주시 복지환경과 관계자는 “기온이 높아지는 시기인 여름철에는 손 씻기와 익혀먹기, 끓여먹기의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항상 준수해야 한다”라며 “냉장고 소독, 음식물의 조리·보관 등 위생적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효철기자

## 따뜻한 벼룩시장 ‘아름다운 일일가게’

###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전주서신점에서 바자회 연구원 직원들이 기증한 중고물품 350여점 판매 수익금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 위해 사용키로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직원들이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따뜻한 벼룩시장을 열고, 수익금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키로 했다.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소장 유강열, 이하 연구원)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아름다운가게 전주서신점에서 기증받은 연구원 임직원들의 물건으로 ‘아름다운 일일가게’ 바자회를 개최했다. ‘아름다운 일일가게’는 가족이나 모임단위로 사용하지 않는 물건 50점 이상을 기부해 4시간 이상 직접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적기업 아름다운가게의 프로그램이다.

이날 일일가게 행사에서는 연구원이 앞서 2주간 기증받은 직원들의 중고 물품 350여점이 전시·판매됐으며, 연구원은 물품 기증뿐만 아니라 판매에도 앞장서 약 114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날 거둬들인 수익금은 희망나눔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유강열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은 “지난 2월 사랑 나눔 현행 이후 다시 한번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전주출연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송효철기자



“투표에 꼭 참여해주세요”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란)는 29일 전북대학교 옛 정문을 찾아 ‘6·13 지방선거 꼭 투표하세요’ 캠페인을 실시했다.

## 서민 주거 안정 돕는 공공건축가 역량강화

### 전주시, 빈집정비·활용방안 공유토론회 31일 열어... 빈집실태조사 필요성 논의 재능기부 운영사업 전국 최초 시행

전주시가 노후주택 개보수 등 서민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돕는 주거복지 공공건축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17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에서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주거복지정책을 가장 잘 추진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안정망 일등도시로 인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전주시 주거복지 공공건축가 회원들 주관으로 오는 31일 오후 7시, 대우빌딩6층 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과 주거복지위원회 위원, 주거복지네트워크 위원, 일반시민 등이 참여하는 ‘전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이 △전주시 빈집 정비 정책 추진상 어려움과 대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소개 △빈집실태조사 필요성에 대한 의견, 다양한 빈집 정비 및 활용방안 사례 등의 다양한 시선과 사례, 생각 등을 키워드(언어, 문서, 사진 등)로 제시해 발표하거나 자유 토론하는 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 전주시 주거복지 공공건축가는 시가 주거복지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주거복지 도시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제도로, 건축과 주택, 주거재생, 주거환경, 복지, 부동산, 디자인 등 다양한 주거복지 분야 전문가 22명이 참여해 재능기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그간 사회주택 공급사업과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사업 등에 대한 기획·설계업무에 대한 자문·조정, 사업별 공정에 따른 품질점검 지원, 해피하우스 4개 센터별 시민들을 위한 무료 건축 상담 등에 참여하고 있다. 또, 민간단체의 주거복지사업과 접수리 사업의 자문 및 기획, 무료견적상담 등에도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앞서, 시는 주거복지 공공건축가 회원들의 재능기부 참여 활동을 강화하고 주거복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총 2회의 워크숍 및 주거복지와 사회주택 아카데미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 공유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정지상 건축가(주거복지 공공건축가 간사)는 “이번 토론회가 전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방안에 대한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효철기자

## 전주시, 농번기 일손 돕기 나서

전주시가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모자란 농가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시 친환경농업과 직원 20여명은 최근 농번기 일손 돕기의 일환으로, 최근 이상저온으로 저온피해를 입어 일손이 절실했던 덕진구 원동의 복숭아 재배 농가를 방문해 복숭아 열매숙기 등 일손을 거들었다.

복숭아가 잘 자라기 위해 필수적인 열매숙기는 철저히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고된 작업으로, 농번기 농가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작업이다.

이와 관련, 시는 친환경농업과와 완산·덕진구청 경제교통과, 각 동 주민센터에 농촌 일손 돕기 접수창구를 개설,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봉사 인력들을 연결해오고 있다.

농촌 일손 돕기 우선지원 대상자는 △독거농가, 장애농가 등 기초생활보장대상 농가 △과수·채소 등 수작업 인력이 많이 필요한 농가 △태풍·우박·폭설 등 기상재해를 입은 농가 등이다.

시는 농촌 일손 돕기를 농번기인 5월과 6월, 10월과 11월에 집중 추진하되, 기상재해와 돌발 병해충 발생 등으로 인력수급이 어려울 경우에도 수시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주시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전주는 농촌과 도시가 조화를 이룬 도시로, 이번 일손 돕기가 농촌과 도시의 아름다운 협력의 일환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송효철기자

## 전주시, 내일까지 반월초서 자전거 안전교육

전주시는 2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3일간 전주반월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1학년과 4학년 어린이 16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반월초등학교는 아이들에게 자전거에 대한 친밀감을 높여주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지난해에도 전주시 자전거 교육을 받았으며, 지난해에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1·4학년생 학생들을 위해 올해도 자전거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전주시 자전거 안전교육은 자전거 전문강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 자전거 이용시 안전수칙과 올바른 이용법, 교통법규 등 이론 교육을 받은 후,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자전거 타보는 이론과 실기를 병행 운

영한다.

특히, 자전거를 놀이기구로 생각하기 쉬운 어린이들에게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인식시키고, 자전거를 본격적으로 활발히 타기 시작하는 시기인 초등학생들에게 자전거교육을 통해 올바른 자전거 이용방법을 익히게 함으로써 성장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올바른 자전거 이용습관을 기르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시는 자전거가 아동·청소년에게는 처음으로 운전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향후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확대해 올바르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